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내일환매초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

2026년 09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666억 원

펀드유형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 A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C : 2025년 04월 03일
- 클래스 C-E : 2025년 04월 08일
- 클래스 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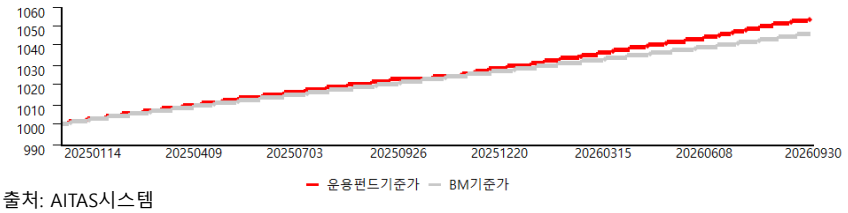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28%	0.97%	1.78%	3.19%	-	-	-	5.35%
클래스 A	0.26%	0.93%	1.69%	3.01%	-	-	-	4.12%
클래스 C	0.25%	0.87%	1.59%	2.80%	-	-	-	4.04%
클래스 C-E	0.26%	0.91%	1.67%	2.96%	-	-	-	4.25%
클래스 C-F	0.27%	0.95%	1.74%	3.10%	-	-	-	5.19%
벤치마크	0.25%	0.71%	1.35%	2.63%	-	-	-	4.6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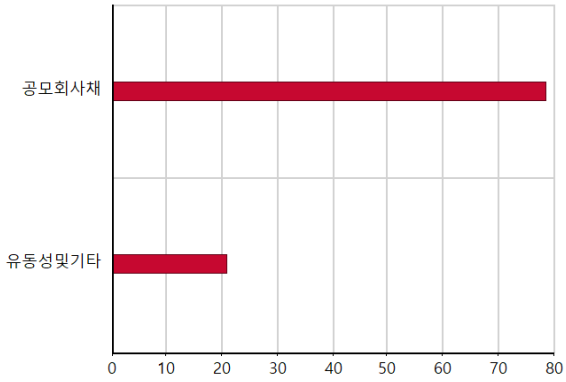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9월말 기준)

<채권 종류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공모회사채	78.8
2	유동성및기타	21.2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9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대신에프앤아이 20260707-92-1(단)	6.0
케이비캐피탈574-1	6.0
디비크레딧제일차 20260709-91-2(단)	6.0
JB 우리캐피탈571-4(지)	6.0
컬티베이션제팔차 20260811-91-1(단)	6.0

종목명	비중(%)
롯데케미칼 20260827-92-2(단)	6.0
SK증권 20260911-91-1(단)	6.0
다올투자증권 20260915-91-7(단)	6.0
비에스에프플러스제일차 20260709-91-1(단)	3.0
디비크레딧제이차 20260710-90-1(단)	3.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내일환매초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

2026년 09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179% (판매 0.1%)
- 클래스 C : 총 연 0.379%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229%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3%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8월 비농업고용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 이어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외 금리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생산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며 9월 FOMC 인상 전망이 강화되었고,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 중순에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WTI가 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하며 국내 물가 경계가 확대된 가운데, ECB에 이어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BOJ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월 후반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휴를 앞둔 단기물 캐리 수요, 9월 모집 방식 국고채 미발행 소식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석 연휴 중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금리 급등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월말 채권시장 약세가 재차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7.5bp 상승한 4.015%, 10년 금리는 10.5bp 상승한 4.415%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3개월 전단채 중심의 보수적인 운용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RP 매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0월 금통위에서는 수출 호조와 견조한 성장세,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3.50% 수준까지의 인상 경로는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대외 긴축 압력과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재차 악화될 경우 Terminal Rate가 3.7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경계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채 공급 부담 역시 글로벌 금리의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공급 부담이 기존 예상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발행 규모 조정과 바이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역시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9월 금리 급등 이후 최근 나타난 되돌림이 추가로 이어질 여지는 있으나, 국내외 Termin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국고채 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단기시장은 9월말 기준 3개월 A1 CP의 경우 3.41%, 여전채 및 회사채 AA- 3개월의 경우 각각 3.62%, 3.66% 수준입니다.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4분기 단기수급은 연말에 가까울수록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격적인 펀드 운용보다는 보수적인 펀드 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절대금리 매력도에 근거하여 전단채 외의 일반채권 투자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펀드의 듀레이션은 0.2년~0.4년 레인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